

# 제주관광의 경관이미지 변화 와 오름에 대한 미학적 시선 의 출현

진종헌 교수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jhjin@kongju.ac.kr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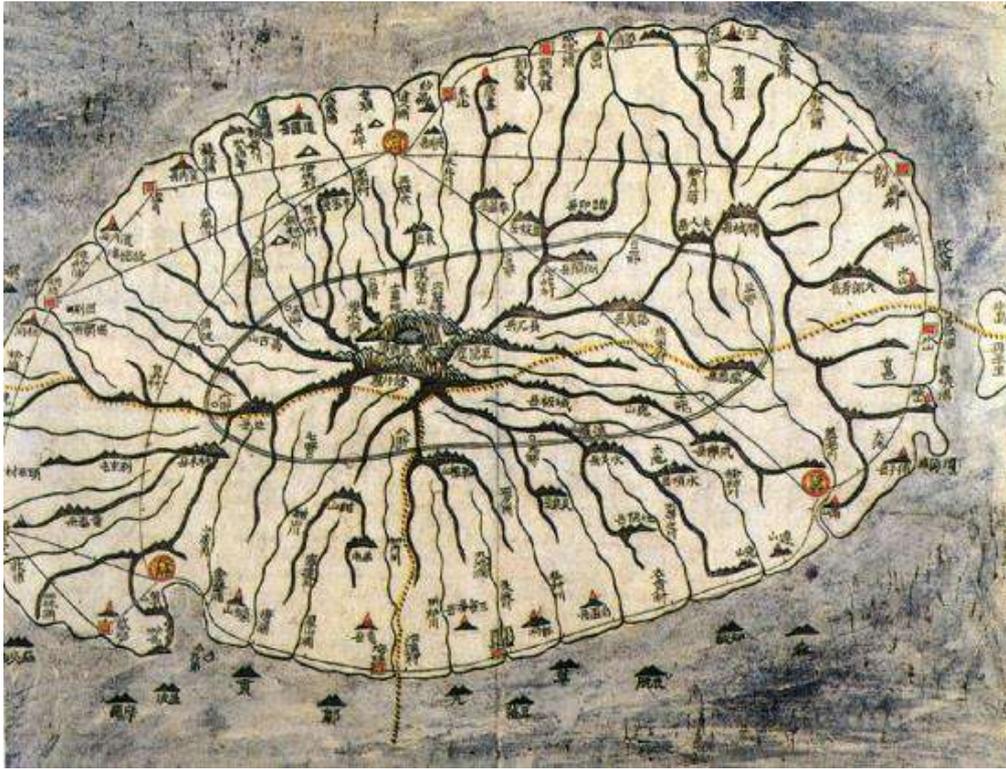
---

- 배경
- 1960s~80s 제주관광과 경관재현
- 1960s~80s 제주관광과 경관미학
- 오름낭만주의1: 김종철의 <오름나그네>
- 오름낭만주의2: 김영갑의 오름미학
- 1990s 후반 이후 제주관광과 상징경관의 변화

# 배경 ) 1970년대 이후 제주경관의 변화: 내셔널 담론과 실천의 작용

- ① 국립공원화: 자연과 인간의 분리
  - 환경보전
  - 상산방목문화의 소멸
- ② 산림녹화사업: 오름 경관의 변화
  - 화입/별목의 금지
- ③ 국토개발: 중산간지대의 개발
  - 공동목장의 해체: 토지에서 주민을 분리
- 결과
  - '육지'發'국토개발-보전'의 내셔널 담론/실천 속으로 로컬 전통생태 담론 /실천이 포섭/용해됨: 개발/보전의 이분법은 지리적 분절을 초래
  - 지리적 분절: 보전공간(한라산)과 개발공간(해안), 그 사이에 중산간 지대 ('사잇공간')
  - 자연환경-주민-생업(목축/농경)'을 잇는 생태적 순환고리의 해체
  - 외부에서 부과된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을 통해 고정된 이미지 생산





## 1960s~80s 제주관광과 경관재현

- 1960~90년대 초반 여행안내책자의 경관이미지 분석
- ① 瀛州十景의 재구성
  - 제주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의 변형/재생산
- ② 20세기 지질학적(지형학적) 경관의 발견
  - 특정지점 중심의 지형, 지질학적 자연경관위주의 관광
  - 폭포, 주상절리, 자연동굴, 한라산 등
  - 부분적으로 영주십경에 포함
- ③ 문화경관
  - 특정 문화유물: 물허벅, 돌절구, 돌하르방, 돌담
  - 민속마을(성읍)
  - 유채꽃, 감귤밭
  - 제주민의 삶과 유리된 문화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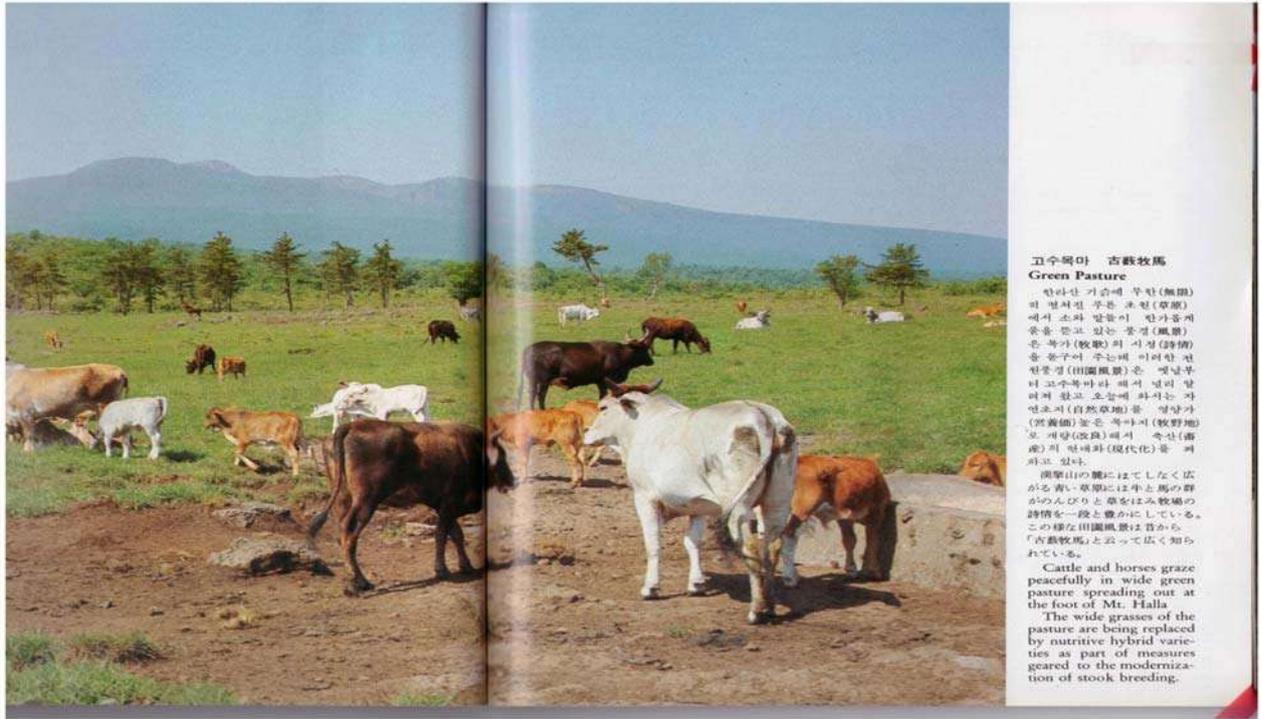


## ㉠ 영주십경 (瀛州十景)

- 제주사람들은 과거 한라산을 "산신이 사는 신비한 산" 이라는 뜻으로 영주산이라고 칭함
- 20세기 후반 제주도관광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대중적 인지도가 하락. 그러나, 성산일출봉이나 정방폭포와 같은 어떤 장소들은 여전히 유명한 관광명소
- 제주의 유학자 이한우(1818~1881)가 시적이미지로서 제주의 10개의 풍경을 선택한 것에서 유래

- |                            |                       |
|----------------------------|-----------------------|
| • 城山日出 : 성산일출봉에서 보는 일출     | • 鹿潭晚雪 : 늦겨울 백록담의 눈   |
| • 紗峯落照 : 사라봉에서 보는 노을       | • 靈室奇岩 : 한라산 영실의 기암괴석 |
| • 瀛邱春花 : 영구(산신이 사는 언덕)의 봄꽃 | • 山房窟寺 : 산방산의 굴의 절    |
| • 正房夏瀑 : 정방폭포에서의 여름        | • 山浦釣魚 : 산지포구의 고기잡이   |
| • 橘林秋色 : 귤이 익어가는 가을빛       | • 古藪牧馬 : 풀밭에서 기르는 말   |

## 10 景 : 古藪牧馬



고수목야 古藪牧馬  
Green Pasture

한라산 기슭에 무한(無限)의 펼쳐진 푸른 초원(草原)에서 소와 말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풍경(風景)은 목가(牧歌)의 기정(詩情)을 풍자( 풍자)하여 주는데 이러한 전원풍경(田園風景)은 옛날부터 고수목야라 해서 널리 알려져 왔고 오늘날까지는 자연초지(自然草地)를 일당가(일당가) 또는 목야지(牧野地)로 개량(改良)해서 축산(畜産)의 현대화(現代化)를 꾀하고 있다.

漢羅山の麓にはてしなく広がる深い草原には牛と馬の群がのんびりと草をはみ牧場の詩情を一段と豊かにしている。この様な田園風景は昔から『古藪牧馬』と云って広く知られている。

Cattle and horses graze peacefully in wide green pasture spreading out at the foot of Mt. Halla.

The wide grasses of the pasture are being replaced by nutritive hybrid varieties as part of measures geared to the modernization of stook breeding.

## 瀛州十景의 현대적 재구성

- 표면적으로 볼 때 영주십경은 19세기와 큰 차이 없이 1970~80년대 대중관광에서 폭넓게 활용됨
  - 그러나, 자연-문화경관 통합적 관점에서 큰 차이가 존재
- 瀛州十景(19세기)
  -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의 균형/통합
  - 제주민의 일상적 삶의 경관: 목축, 어업, 굴농사
  - 제주민의 관점을 반영but 유학자의 관점: 제주토착 유학자(이한우)
  - 예) 굴림추색
- 1970~80년대 제주관광경관
  - 영주십경+지질학적 경관+문화경관
  - 제주민의 일상적 삶과 遊離된 문화경관
  - 자연경관(지질학적 경관)에 초점
  - 외부의 관광객을 의식한 경관: Tourist Gaze
- 귀결: 영주십경의 의미변화
  - 외부자 관점의 경관이미지 속에 포섭
  - 구체적인 의미변화: 예) 산방굴사 외

## ㉞ 지질학적 경관

- 영주십경과의 비교
  - '아름다운' 경관에서 '기이한' 경관으로
- 20세기 새로운 발견에 의해
  - 만장굴(천연기념물 98호): 1946~7년, 부종휴선생과 30인의 꼬마탐험대에 의해 발견
- 바닷가 경관 위주로 구성
  - 용두암, 범섬, 외돌개, 주상절리 등
- 내용의 변동: 범섬의 퇴조와 주상절리(천연기념물 443호)의 편입
  - 80년대의 여행가이드에 범섬은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으나, 주상절리대는 많이 나타나지 않음



### 용 두 암

龍頭암은 濟州市 龍潭洞 바닷가에 돌출한 怪巖으로 마치 입을 벌려 하늘로 솟아오를 듯한 용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용두암이라 불리는 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龍王의 사자가 한라산에 不老長生の 약수를 캐러 왔다가 山神이 쓴 화살에 맞아 죽고 그 시체가 용고되어 일부는 바다에 쫓기고 머릿만 튀어 나온 것이 오늘날의 용두암이라고 한다.

### YONGDUAM (ROCK)

#### (Dragon Head Rock)

The name of the rock comes from the shape that looks like a dragon soaring up to the sky with his mouth open.

### 竜頭岩

濟州市龍潭洞海岸に突出した高さ10余mの怪岩であたかも竜が口をあけて空へ飛び立つようである。

伝説によると龍神の使者が漢拿山に不老長生の薬草をとりに来たが神様が射た矢にあたって海に落ち石になったと言われている。岩の形が竜の頭になっているところから「竜頭岩」と呼ばれている。

## ㉔ 상징적 (문화)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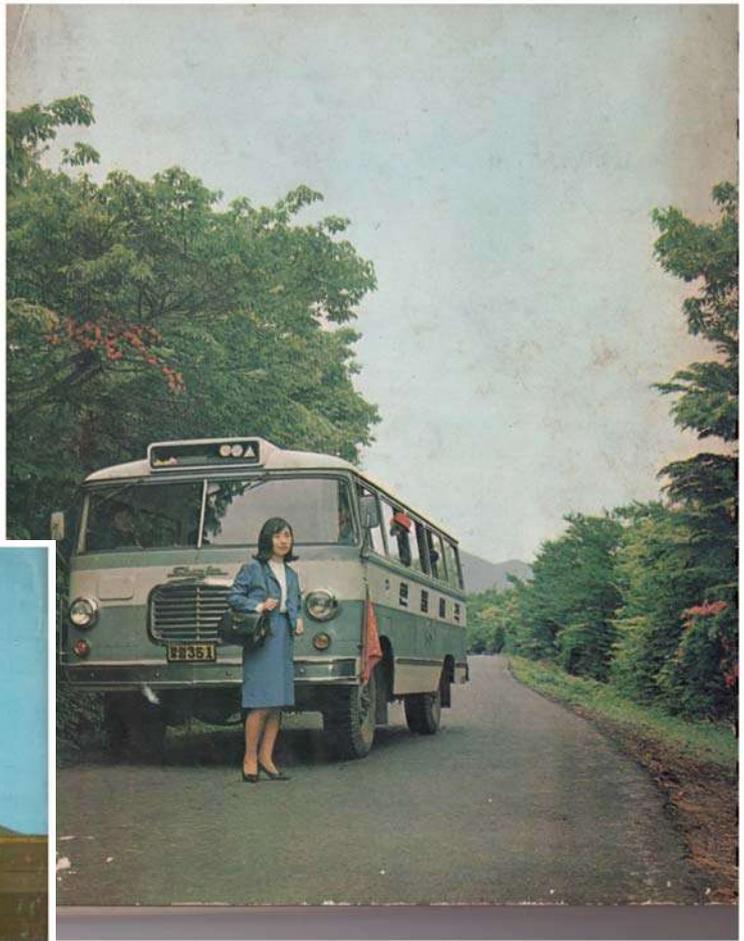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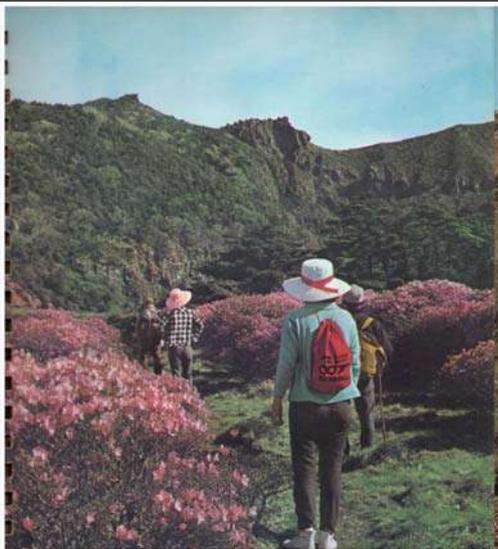
- 1) 문화의 물상화(reification): 물질문화의 개별 요소 혹은 인공물 (artefact)에 대한 관심
  - 문화요소가 지리적/공간적으로 어떻게 종합되는가에 무관심
- 2) 제주사람들이 제대로 재현되지 않음(예: 해녀)
  - 제주인들이 관광이미지에서 거의 보이지 않거나 도시인처럼 재현된 해녀(1960년대)
  - '아름다운' 제주 vs. 일하는 제주인들?
- 3) 무속신앙경관에 대한 무관심/배제
  - 본향당/해신당
- 4) 전형적인 농업경관
  - 제주농업경관의 다양성을 재현하지 않음
  - 픽처레스크풍의 재현: 감귤/유채꽃 등
- 5) 문화가 삭제된 자연경관
  - 한라산국립공원: 목축의 전통(상산방목: 강만익 연구 참조)이 지워짐



最上等の 工芸 精巧한 盆杵  
Korean Manual Mortar



濟州道에서만 볼수있는 물구덕  
Special water tank in Che Ju Island



'오름' 1990년대까지 공식지명으로 불리지 않음: 산굼부리, 기생화산.

대부분의 오름은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진 대상으로 재현되지 않음



기생화산 분화구 寄生火山噴火口 Craters of Parasitic Volcanoes

제주도(濟州島)의 화산활동(火山活動)이 계속(繼續)되고 있는 동안 이루어진다는 기생화산(寄生火山)들이 도내(道内) 곳곳에 350여개소가 있는데 거의가 분화구(噴火口)로 형성(形成)되어 있고, 이러한 산들을 제주(濟州)에서는 「오름」이라 부르기도 한다.

濟州島の火山活動が続いて居た時に出来あがった寄生火山が道内の到る所に、360余りもあり、そこにはほとんど噴火口が形成されています。この様な山を濟州島では「オ름」と呼んでいる。

In Jeju Province, there are more than 360 parasitic volcanoes which are said to have been formed while volcanic action, and most of them now have craters on top.

- 제주에 부과된 '개발-보전'의 개발정치학(politics of development)은 자연스레 내셔널스케일의 관광담론과 실천, 그 속에서 작동하는 제주에 대한 새로운 시선의 출현을 동반했다. 1970년대 초반 이후 권위주의 정부 주도의 제주관광개발과정에서 민족의 자랑거리로 충분한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이미지가 생산되었고 이는 외화획득을 위한 한국의 대표관광자원으로 대량으로 유통/재생산되었다. 이 고정된 이미지는 제주의 전통생태 및 제주인의 일상과는 유리된 '자연-문화'의 이분법을 강화하는 '순수자연/원초적 자연(intrinsic nature)'(Castree 2001)의 경관이었으며, 이는 육지에서 볼 수 없는 기이하고 이국적인 자연풍경들로 제주사람과 제주의 '살아 있는/진정한' 문화는 그 '지질학적 자연' 속에서 배제되었다. 자연 뿐만이 아니었다. 제주의 문화는 살아 있는 제주인의 일상 속에서가 아니라 박제화된 경관요소나 인공물(artefacts)로 환원되었다. 지역사 및 생활사와 분리된 돌담, 돌하르방, 해녀의 물질이나 성읍민속촌 같은 문화경관이 그러하다. 일종의 무대화된 진정성(staged authenticity)이 작동하는 장소였다.

## 1970s~80s 제주관광과 경관미학

- 육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경관이미지
  - 지점(points and areas) 위주의 관광
  - 지리적 맥락과 환경, 주민들의 일상과 분리: 이국적 경관
  - 점에서 점으로 이동하는 관광
- 제주의 대부분 지역은 사실상 재현에서 배제
  - 특히, 중산간 지대 (오름경관 외)의 배제
    - uncalled/unseen
  - 개발-보전 이분법(분단의 공간정치)의 효과
- 문화 vs. 자연, 내부자 vs. 외부자(관광객, 개발자, 정부 등), 의 분리와 함께 새로운 경관미학의 출현
  - 관광을 위한 경관이미지는 제주민들이 고유한 환경조건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방식과 양립하지 않음
  - '관광객의 시선'/'무대화된 진정성'

## 오름에 대한 미학적 시선의 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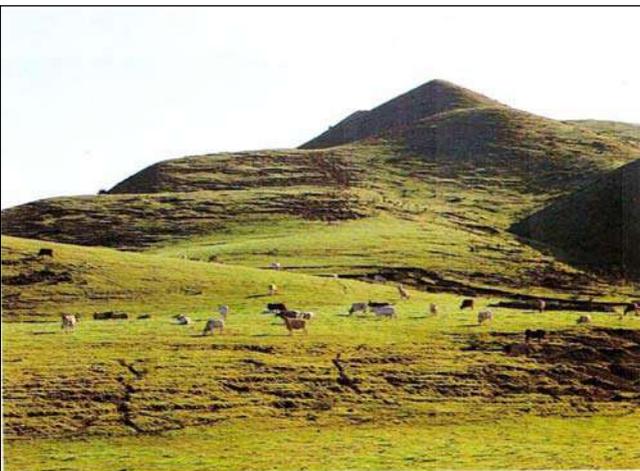
- 새로운 관광제주의 경관이미지 속에 오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한라산은 오름과 별개로 상징적 민족경관national landscape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오랜 시간 제주인들의 삶과 죽음의 터전이었던 오름은, 일상에서 멀어지고 관광매력지로서 관심을 얻지도 못했다. 원형적 오름경관의 미덕은 김종철을 비롯한 몇몇 선구자들이 90년대 중반에 언급하기 시작할 때까지 한동안 잊혀졌다. 제주의 토박이 지식인/문화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온 사진작가들이 오름능선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김영갑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제주사람들이 오름을 찾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이후 오름은 비로소 많은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문학인들과 영화인들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다양한 문학과 예술적 재현 속에서, 물결치는 듯한 오름의 선이 만들어내는 제주고유의 경관미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의 주요장면과 중첩되기도 하고, 삶과 죽음의 철학적 단상의 모티브이기도 했다.

## 오름, 노동의 공간에서 심미적 경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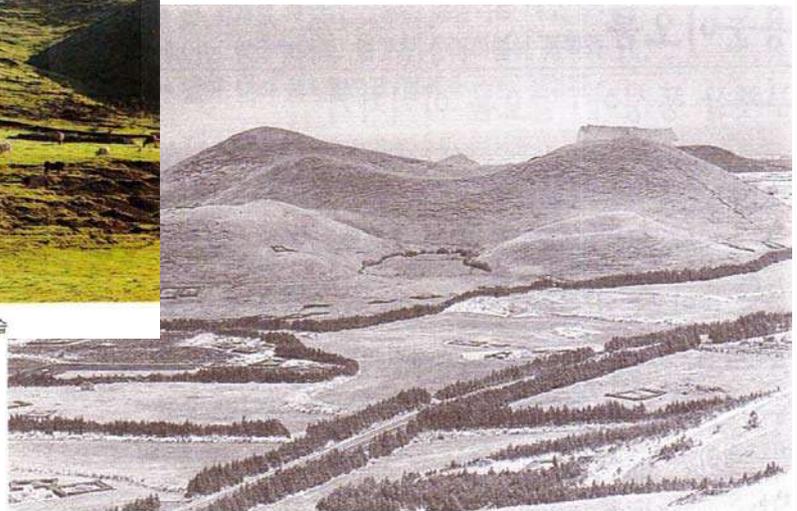
- 오름경관의 과거일상경관에서 심미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경관을 감상하는 사람이 그 경관의 내부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 일상적 노동의 경관 내부에 있으면서 그 노동의 복잡한 사회적 관계속에 얽매어 있을 때, 경관을 '순수하고 추상적인' 형태와 관념으로-일종의 픽처레스크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경관을 픽처레스크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풍경 속의 모든 난잡하고 혼란스러운 요소들을 제거해서 경관의 진실하고 추상적인 속성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Nash 2005, p.159)

## 오름 낭만주의: 김종철의 <오름나그네>

- 김종철은 1988년에 『제주도지』에 '제주도 기생화산소묘'를 연재한 이후 1990년 『제민일보』의 창간과 함께 오름기행을 인기리에 연재.
- 그리고 1995년에는 연재의 결과물들을 모아서 『오름나그네』(전3권)을 출간
- 최초의 오름등반동호회라 할 수 있는 '오름오름회'('오름나그네'로 출발)는 1995년 2월 타계한 김종철을 추모하는데서 출발한 모임
- 『오름나그네』에서 오름은 일상적 삶과 노동의 공간에서 벗어나 '여인의 나신처럼 아름다운' 심미적 피사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 그가 기억하고 있는, 나비학자 석주명이 '한라공원'이라 비유했던 들판의 풍경은 "진달래, 팡팡나무 군락에 철따라 들꽃 산꽃이 수놓아지고 갖가지 나비며 산새소리, 방목 우마가 어우러지는 평화경(1권 p.181)"이었다.
- "한라산 위에서도 수해속에 담황색으로 뚜렷이 내려다 보이는, 한라산의 자랑거리의 하나이던 산중 고원이 산림녹화라는 이름아래 20여년 전부터는 온통 거무칙칙한 인공림으로 화하고 말았다.(제1권 p.182)"



• 동거미오름 자락에 소떼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



▲ 남북으로 비스듬히 누운 용눈이오름은 부챗살 모양으로 여러 가닥의 등성이가 흘러내려 기이한 경관을 빚어낸다.

- "신선한 오름인 것이다. 너울거리는 능선의 기복에도, 굽이치는 굴곡선에도 생동감이 흐르고 있다(1권 p.104)" 저자 김종철은 용눈이오름 곡선의 아름다움과 생동감이 풀밭오름이기에 잘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김중철의 오름관

- 1) 미학적 시선: 여성의 신체로 인식
  - 저자는 제주의 대표적 오름 중 하나인 다랑쉬오름에 대해 '비단 치마에 몸을 감싼 여인처럼 우아한 몸맵시'라고 묘사하고 있다.<오름나그네1>, p.34).
  - 또한 돌오름의 첫인상을 '육감적이랄 만큼의 풍만한 몸매'라고 표현했다(<오름나그네1>, p.43).
  - 이달오름은 볼록하게 솟아 올라 쌍봉으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대지에 솟아오른 (미인의) 아름다운 젓가슴' 이라고 묘사되고 있다(<오름나그네2>, p.266).
  - 풀밭오름이면서 분화구가 없는 솟오름(雄岳)에 대해서는 '비단결 아름다운 몸매에 소복이 눈이 쌓이면 또 얼마나 청아한 모습일까 상상해 본다.<오름나그네 1>, p.186'
- 2) 환경주의적 시선
  - 주체오름은 "철따라 예쁜 꽃이 피어나고 마소들을 살찌우던, 아담하고 곱다란" 비운의 오름은 "1년 남짓의 시한부 수명" 에 곧 "사라져 갈 운명"이다.
  - 살오름 북쪽 해발 약700m 난대림은 우리나라 유일의 극상상태 보유림으로 '식물군락이 환경에 종국적으로 적응한 상태'이며, '식물생태계에 있어 보배로운 존재'라고 표현해 인공림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천연림에 대한 상찬이 이어진다(<오름나그네1>, p.289).
- 3) 풍수적 시선

## 김영갑(1957-2005)의 미학: 순수자연의 본향으로서의 중산간 경관

들판이 펼쳐놓은 축제의 무대를 즐기다 보면 다시 기운이 납니다. 그런 들판으로부터 받기만 할 뿐, 나는 단 한번도 되돌려 주지 않았습니 다. 들판은 그런 나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대신 언제나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나의 모습은 들판으로 나오기 전까지와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들판을 만나고 오는 날에는 잠자리가 편안합니다."

"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길목, 풀과 나무들은 온갖 시련을 홀로 견디며 무성하게 자랍니다... 나의 친구 들판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해 줍니다."

- **김영갑이 추구했던 순수자연:**
  - 영속적이며 순환적이고eternal and cyclical
  - 전체론적이고holistic
  - 인간 세상과 무관한innocent
- **역설**
  -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야성의 중산간 경관은 오랜 역사시기 동안 제주민들의 고된 노동의 산물이자, 지속적인 인간-환경 상호작용의 유산

# 1990년대 후반 이후 제주관광과 상징경관의 변화

-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제주경관의 경험(미학과 실천see/practice)
  - 점(points): 새로운 관광지의 발견
  - 선(lines): 올레길
  - 면(surfaces): 오름트레킹
  - 이전의 관광이미지에서 볼 수 없었던, 신체경험을 통한 제주경관의 재현
- 제주를 '보는 새로운 방식'의 출현
  - 제주민들 사이에 오름 트레킹의 대중화
  - 관광객들로 확대
  - 제주의 새로운 상징경관으로 부상
  - a way of seeing -> a way of "doing" landscape
- 실천(practice) 과 수행(performance)의 경관
  - 외부의 시선에서 생산된 고정된 경관재현의 극복가능성 탐색

# Thank you

---